

# 마포

##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7.8.	조사자	이경재	유형구분	문화예술-연구진제안
------	---------	-----	-----	------	------------

대상명	마포(麻浦)
-----	--------


###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	------------	--

작가	백석	출간연도	1935
내용	<p>사장(沙場)은 물새가 없이 너무 너르고 그 건너 포플라의 행렬은 이 개포의 돛대들보다 더 위엄이 있다. 오래 머물지 못하는 돛대들이 쫓겨 달아나듯이 하구(河口)를 미끄러져 도망해 버린다. 나무 없는 건넌 산들은 키가 돛대보다 낮다. 피부빛은 사공들의 잔등보다 붉다. 물속에 들어간 닻이 얼마나 오래 있나 보자고 산들은 물위를 바라보고 들 있는 듯하다.</p> <p>개포에는 낫닭이 운다. 기슭 훤한 물결 소리가 닭의 소리보다 낮게 들린다. 저 아래 철교 아래 사는 모터 보트가 돈 많은 집 서방님같이 은회색(銀灰色) 양복을 잡숫고 호기 뻗친 노라리 걸음으로 내려오곤 한다. 빈 매생이가 발길에 채이고 못나게 출렁거리며 운다.</p> <p>커다란 금휘장(金徽章)의 모자를 쓴 운전수들이 빈손 들고 내려서는 동독을 넘어서 무엇을 찾는 듯이 구차한 거리로 들어간다. 구멍나간 고의를 입은 사공들을 돌아다보지 않는 것이 그들의 예의이다. 모두 머리를 모으고 몸을 비비대고 들어선 배들 앞에는 언제나 운송점(運送店)의 발간 트럭 한 대가 놓여 있다. 때때로 풍풍풍풍……거리는 것은 아마 시골 손들에게 서울의 연설을 하는지 모른다.</p> <p>여의도(汝矣島)에 비행기가 뜨는 날, 먼 시골 고장의 배가 들어서는 때가 있다. 돛대 꼭두마리의 팔랑개비를 바라보던 버릇으로 뱃사람들은 비행기를 쳐다본다. 그리고 돛대의 흰 깃발이 말하듯이 그렇게 하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에 영등포를 떠나오는 기차가 한강철교를 건넌다. 시골 운송점과 정미소에 내는 신년괘력(新年掛曆)의 그림이 정말이 되는 때다.</p> <p>“마포는 참 좋은 곳이야!” 뱃사람의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감탄한다.</p> <p>흰수염난 늙은이가 매생이에서 낚대를 드리우지 않는 날을 누가 보았나? 요단강의 영지(靈智)가 물 위에 차 있을 듯한 곳이다.</p> <p>강상(江上)에 호늬이는 나룻배를 보면 「비파행(琵琶行)」의 애끓는 노래가 들리지 않나 할 곳이다.</p> <p>뗏목이 먼저 강을 내려와서 강을 올라오는 배를 맞는 일이 많다. 배가 떠난 뒤에도 얼마를 지나서야 뗏목이 풀린다. 뗏목이 낮익은 배들을 보내고 나는 때에 개포의 작은 계집아이들이 빨래를 가지고 나와서 그 잔등에 올라앉는다. 기름 바른 머리, 분칠한 얼굴이 예가 어딘가 하고 묻고 싶어할 것이 뗏목의 마음인지 모른다.</p> <p>뱃지붕을 타고 먼산바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 산, 그 너머 산, 그 뒤로 보이는 하이얀 산만 넘으면 고향이 보인다고들 생각한다. 서울 가면 아무뼉 산이 보인다고 마을에서 말하고 떠나는 그들이 서울의 개포에 있는 탓이다.</p> <p>배들은 낫선 개포에서 본(本)과 성명을 말하기를 싫어한다. 그들은 머리예다 커다랗게 붉은 글자로 백천(白川), 해부(海州), 아산(牙山)…… 이렇게 버젓한 본을 담고 금파환(金波丸), 대양환(大洋丸), 순풍환(順風丸), 이렇게 아름답고 길상(吉祥)한 이름을 써 붙였다. 그들은 이 개포의 맑은 하늘 아래 빨사납게 서서 흰구름과 눈빨기를 하는</p>		

	전기공장의 시커먼 굴뚝이 미워서 이 강에 정을 못 들이겠다고 말없이 가버린다.
평가	<p>백석의 「마포」는 제목처럼 일제 시대의 마포를 천재적인 감각과 솜씨로 그려낸 수필이다. 이 수필에서 백석은 요령 있게 1930년대 마포의 다양한 모습을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다. 마포는 본래 풍광이 수려한 것으로 유명하며, 여러 시인 묵객들이 이 지역의 경치를 예찬하였다. 그 경치에 걸맞게 별칭도 삼호(三湖) 또는 마호(麻湖)로 운치 있게 불리었던 것이다. 동시에 마포는 조선시대부터 교통 상 중요한 구실을 수행하던 지역이었다. 특히 서해를 통과하여 한강으로 오는 각 지역 산물을 하역하고 저장하던 곳이 바로 마포였다. 삼남 지방에서 오는 곡식은 물론이고, 황해에서 잡히는 새우·조기 등의 수산물을 풀어놓던 곳도 마포이다. 이러한 기능은 광복 이후 조금씩 약화되다가 6·25 이후 한강 하구의 수운이 휴전선에 의하여 폐쇄됨에 따라 완전히 상실되었다. 그러나 백석의 수필이 쓰여지던 당시까지만 해도 서울로 들어오는 온갖 산물들의 집결지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이것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배들과 뗏목을 통해서도 드러난다.</p> <p>백석의 「마포」에는 1930년대 마포의 한 축을 형성하는 여러 근대적 문물들도 적절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모터 보트, 여의도의 비행기, 한강철교를 지나는 기차, 전기공장의 시커먼 굴뚝 등이 근대화의 세례를 입은 마포 주변의 풍경을 보여준다. “구멍나간 고의를 입은 사공들”과 “커다란 금휘장의 모자를 쓴 운전수들”이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1930년대 마포인 것이다.</p> <p>무엇보다 이 작품의 문학성을 담보하는 것은 백석의 천재적인 문학적 재능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럭 소리를 “때때로 풍풍풍풍……거리는 것은 아마 시골 손들에게 서울의 연설을 하는지 모른다”고 표현하거나, 기차가 한강철교를 지나는 모습을 “시골 운송점과 정미소에 내는 신년패력의 그림이 정말이 되는 때다”라고 쓸 때, 뗏목 위에서 소녀들이 빨래를 하자 “기름 바른 머리, 분칠한 얼굴이 예가 어딘가 하고 묻고 싶어할 것이 뗏목의 마음인지 모른다”고 표현하는 것 등에서 그 천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백석의 「마포」는 천재적인 예술적 감성과 표현을 통해 1930년대 마포의 모습을 풍부하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한 명작이다.</p>

## 2. 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참고)

이름	백석 (白石, 1912년 ~ 1996년)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2년 평안북도 정주(定州) 출신. 본명은 백기행(白夔行) 호는白石(백석), 白奘(백석)</li> <li>- 1924년 오산소학교 졸업</li> <li>- 1929년 정주에 있는 오산고등보통학교 졸업</li> <li>- 1934년 아오야마학원(靑山學院) 전문부 영어사범과를 졸업. 귀국하여 조선일보사에 입사하여 잡지 『여성』 편집</li> <li>- 1936년 조선일보사를 그만두고 함경남도 함흥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로 근무.</li> <li>- 1938년 영생고보 교사직을 사임하고 서울로 상경</li> <li>- 1939년 『여성』지의 편집 주간으로 근무하다 사직하고 만주 신징(新京)으로 이주</li> <li>- 1942년 만주 안동(安東)으로 이주하여 세관에서 근무</li> <li>- 1945년 해방 후 신의주를 거쳐 고향인 정주로 돌아옴. 이후 북한에 남음</li> <li>- 1959년 양강도 삼수군에 있는 국영협동조합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음</li> <li>- 1995년 별세한 것으로 추정됨</li> </ul>		
주요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현상모집에 단편소설 「그 모(母)와 아들」로 등단</li> <li>- 1935년 시 「정주성 定州城」, 「여우 난 굶죽」, 「통영」 등 발표</li> <li>- 1936년 시집 『사슴』 간행. 통영 부근 일대의 기행체험을 담은 「남행시초」 연작 발표</li> <li>- 1937년 산문 「가재미 나귀」 발표</li> <li>- 1940년 시 「북방에서」, 「허준(許俊)」 발표</li> <li>- 1941년 시 「국수」, 「흰 바람벽이 있어」 발표</li> <li>- 1948년 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 「마을은 맨친 구신이 돼서」 발표</li> <li>- 1949년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을 번역 출간</li> <li>- 1957년 동화시집 『집게네 네 형제』 출간</li> </ul>		
수상경력	-		
기타사항	-		